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1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20호

http://www.snuu.or.kr

동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 根 / 편집주간 許 旼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서울대 가족 友誼에 취하고 단풍에 물들고



기을 유채색에 폭 빠져
등산하는 동문 가족들 <관현기사 3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과 — 좌로부터 孫一 根상임부회장, 이근산임
박英珠회장 내외, 林光洙회장, 美士카고대 金允勳교수 내외 <관현기사 18인>

관악산추

국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鄭憲承총장은 “교육부의 3
수(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인재제 불가)원칙을 서울대
는 지키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鄭
총장의 ‘소신’ 발언은 우리 대학교육이 더 이상 경쟁주의
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경쟁 논리로 나이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뵈어 강조한 것이다.

얼마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1백4개국 국가경
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무려 11단계나 추락해 29
위를 나타냈다. 국가경쟁력은 정치·경제·사회발전과 관련
된 수많은 지표의 종합적인 평가에서 나오지만, 그 토대의
하나는 반드시 국민 교육수준이 때때로 있다.

1960~70년대에 착근한 국가발전 동력은 당시 학부모
의 교육열이었고,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였다. 그리고

그 바탕엔 경쟁의 원리가 깔려 있었다. 대학은 물론 중·고
교까지 시험을 치러야 진학할 수 있었다.

고속 성장을 가져다 준 산업화 시대는 그 역작용으로 개
발 독재, 임시 지옥, 빈부 격차 등 그늘도 그만큼 컸던 것
은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
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인권, 분배, 평등주의가 강조된 것

평등보다 경쟁이다

은 어쩌면 역사 발전의 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1만달러의 높을 10년째 헤어나지 못하니, 형평성
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2세 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확
연하게 드러났다.

이제 우리 사회의 부진 활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불
론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되고, 의사소통이 과거처럼 수

직적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뤄진다 해도 평
등주의가 결코 국가발전의 촉매가 될 수는 없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나라의 경쟁력은 젊은 인재
의 배출에 있고, 그 인재의 사실은 바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시대의 국가발전 동력은 경쟁의 원리 아래,
각 대학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자질과 품성
을 갖춘 인재를 잘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때 ‘서울대 폐교’라는 해괴한 주장이 나돌기도 했다.
이 같은 허황왜론의 3단주의나 절대 평등주의의 포퓰리
즘은 사회발전의 결실물만 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17일 포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제26회 홀커밍데이
검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는 서울대가 한국의 국가경
쟁력 향상에 침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짐
소중한 시간이었다. (衡)



동문을 찾아서 14~15
창립 80주년 기념
삼양그룹 金相煥회장



화제의 동문 16
金活蘭여성지도자상 수상
대림실업병원 卞柱仙원장



화제의 동문 16
금합 산업훈장 수훈
롯데관광 金基炳회장

만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炳斗, 李炯均, 南午九, 金廣錫, 金好俊, 宋鍾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燮, 李元鎮,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사람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辛京熙, 裴天錫, 李元燮, 李昌諒, 卞聖龍, 朴勝俊, 金銀錫,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亨宇, 裴智媛, 金南柱, 張公望, 金千鶴

흔느리나무장

워싱턴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 미국의 교육 실정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질문들을 듣다 보면 미국에서는 놀면서도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는 전체를 갖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을 학생으로 두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미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우선 학교 수업이 만만치 않다. 과목마다 우열반이 있고 각 과목의 우열반인 AP나 HONOR 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명문 대학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를 해야 살아 남는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영어가 모자란 탓도 있지만 시도 때도 없는 시험과 퀴즈, 상당히 협박적인 숙제와 구두 발표, 그리고 수업 참여의 압박으로 밤을 새우고도 모자라 주말까지 밤낮해야 했다. 거기에서 성적의 상승세를 유지해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원서를 내는 12학년 1학기까지 여유를 잡기 어렵다.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SAT에서 수학은 그대도 해볼 만

하지만 영어에서는 처음 보는 단어들을 끝없이 외워도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다. 좋은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의 SAT2 성적을 요구한다. SAT를 여러 번 칠 수 있어 위안이 되긴 하지만 이 시험을 주관하는 민간 회사가 난이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데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부는 그대도 어떻게 해 본다고 하겠지만 학내의 활동과 사회 봉사, 인턴과 수상에서 골뎀이 든다. 대학에서 높게

인정해주는 디지 속구나 농구 선수 또는 신문 편집장 같은 경력을 쌓는 일은 꿈꾸기도 쉽지 않아 꿈으로 때우는 밴드 부에서 몸을 파는 편이 낫다. 원서를 쓰는 일도 몇 십 분에 끝나지 않는다. 직접 써야 하는 수많은 작문, 교사들의 추천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가 많아 점검표를 만들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10개 정도 원서를 내다보면 우송료와 전령료도 꽤 들어간다.

이런 관문을 지나 가다치고 있으면 대학에서 당락을 알려주는 간단한 편지가 온다. 그런데 당락의 기준을 알 수 없고 물을 수도 없다. 교육 관계자들도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왜 내 아이는 떨어지고 성적이 모자란 다른 아이는 합격했는지 묻는 항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내신등급을 올려주는 일, 고교등급을 둘러싼 논란, 학력고사를 둘러싼 논쟁도 없다. 대학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항의도 없다. 여가를 편중하는 것은 합당성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그 바탕에는 좋은 인재를 뽑아 훈련을 시키기 위한 대학도 사회도 살아 남는다는 정경이 깔려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정경도 이르게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논란과 아픔을 겪어야 할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쯤일까.

미국대학은 진학하기 쉽다?

辛 京 珉
MBC도쿄 부국장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교육정책의 대전환을...

모교의 鄭明勳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3월 정책을 비판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학 총장이 교육부가 내걸은 3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며 교육정책의 재평가를 위한 음반은 지적이라고 하겠다.

교육부가 내건 소위 3월 정책이란 학교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업입학제 금지 등을 말한다. 이것은 고교평준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정책이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전학이 잦은 군인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없애 군인자녀에게도 공평한 학교도 좋은 고교에 보낼 수 있는 기회로, 많은 학부모에 영합하여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자의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 결과 고교입시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학교 수업은 엉망이 됐고 고교 교육은 대학입시정책에 영합하여 공교육은 포기하고 사교육에 위임하게 됐다. 고교는 학원에 대하는 학생들의 수면장이 돼버렸다. 교사들은 수화능력의 차이가 많은 학생들을 한 반에서 가르칠 수 없어 중간지 학생을 상대로 수업할 한으로써 우수한 학생은 바보가 되고 일반학생은 학자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 동안의 정경은 군사정권의 고교평준화정책을 묵수하면서 영세교육학교, 특수목적학교, 자율사립고등학교 등을 도입하여 특성소수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불거여 왔다. 그 결과 고교의 성격은 천차만별로 됐고 특정고등학교의 작은 학생 동아리 수 밖에 없었다. 대학은 이러한 고교간의 성격적차를 인정하여 입학특례를 인정했는데 이를 '고교등급제'라 하여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심오한 학술이론을 강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



金 哲 洙
(56년 法大卒)
모교 명예교수

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대학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대학의 평준화를 하기 위하여 응시생에 대한 판단기준을 없애고 있다. 수능등급제와 내신 부분평가 때문에 대학은 부득이 본고사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각각 대학은 입학시험과 내신장부, 추천서, 면접시험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엄연히 고교평준화를 인정하여 입학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험고사, 인성검사의 성적비율을 대학에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나 이는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이지 무차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능력 유무의 관념은 대학의 교육가능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우선하는 것이 학부모의 학생의 교육선택권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교평준화정책은 헌법에 위반된다. 고교평준화는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켰고, 대학교육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평준화는 학문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다.

모교는 교육부의 자침에 따라 내신성적과 수능등급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우수대학보다 입학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포항공대나 KAIST에 이미 뒤처져 있는 모교가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훨씬 못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도 이미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모교 총장이 이러한 모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사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몇 사람의 천재학자가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성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에 좋은 능력을 갖춘 학생의 선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학 본고사의 도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부활하여 공교육제를 살려야 한다. 돈이 없어, 과외를 할 수 없어 모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구해하기 위해서도 좋은 고등학교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학생의 능력과 성품은 고교시대에 거의 완성되는데 이를 방해해: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 고교의 평준화와 대학의 평준화는 양극의 긴밀을 위장자는 깨닫아야 한다.



朴明勳특지장학회

석사과정 2명에 연구비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勳(76년 保大院卒·관악교 이사)이사장(사진 右)은 지난 10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대학원 白明勳(81년 醫大卒)부원장, 보건정책관리학전공 文玉齡(67년 醫大卒)교수, 보건학전공 趙聖一(86년 醫大卒)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학년도 2학기 '朴明勳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문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鄭廣仁·孫慶熙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했다. (李)

2005년 DIARY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포켓을 DIARY'를 제작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DIARY는 동문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Soft Cover를 사용하여 부피와 크기를 최대한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성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들 11월 초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대 동문창회 사무처



林光洙회장이 대회에서 "평생 좋은 친구인 산을 오르니 얼굴도, 마음도 맑아진다"고 말했다.

서울대인의 기상 만끽

홈커밍데이 겸 등산대회 5천여 명 대성황

6백여 동문 금품 협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17일 5천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점수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趙英男(64년 普大入) 동문의 CD와 인가 자동차보험사에서 협찬한 스포츠용 손목보호대를 기념품으로 받고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등산을 시작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삼삼오오 가족 단위로 길을 나선 참석자들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소재공학연구소를 지나 편안한 아카시아 동산, 제야영장, 무너비 고개를 넘어 약 1시간 동안 산행을 했다.

인양의 농생대 수목원에 도착한 동문 가족들은 차에서 큰 호수를 앞에서 몽골리안 스타일의 천막 아래에서 푸짐하게 준비된 점심을 들었다.

이어 본회 尹 璽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연세 찾아와도 변함 없이 우리를 반겨 주는 산을 오르다는 것은 평생 좋은 친구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다"며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구름구름한 산길과 계곡, 그 사이로 자라는 풀과 꽃을 감상하다 보면 흐르는 명암물을 통해 얼굴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진다"고 밝혔다.

또 "불고 끝까지 붙어있는 관악산의 나무들을 보면서 모교에서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머리 속에 떠올리며 회를 안겨주는 서울대 동문으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교 鄭大韓총장은 축사에서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학부직원 감축으로 소수정예 교육체제로의 변모, 기초교양 강화, 지역현형산업에 도입 등 재학생들을 지식창조자로 기르기 위한 작업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경과보고를 통해 "역대 최대동문인 6백여 명이 행사를 위해 다양한 협찬품과 협찬금을 출연해주셨으며, 특히 林光洙회장께서 작년 이어 올해에도 동문들의 사

기증전을 위해 작지만 그야말로 알찬 '별집' 자동차 마티즈를 제공해주셨다"고 말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협찬금품출연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찬자 명단 4~5면 참조)

행사 경과보고가 끝난 후 林光洙회장이 모교 농

'오나라'와 함께 단합 다짐해



朴七右(右)씨가 승용차 경품에 당첨된 형은아.



가수 이 연 동문이 특별출연

고 말하고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고견을 늘 경청하고, 모교가 가져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함께 생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처음 등산대회를 개최했을 당시에는 2백여 명 정도가 참가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5천여 명이 참석해 대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큰 행사로 발전하여 심로 가슴 벅차고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경과보고를 통해 "역대 최대동문인 6백여 명이 행사를 위해 다양한 협찬품과 협찬금을 출연해주셨으며, 특히 林光洙회장께서 작년 이어 올해에도 동문들의 사

기증전을 위해 작지만 그야말로 알찬 '별집' 자동차 마티즈를 제공해주셨다"고 말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협찬금품출연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찬자 명단 4~5면 참조)

행사 경과보고가 끝난 후 林光洙회장이 모교 농

생대 李亨新(82년 農大卒·산림과 학부 교수)수목원장에게 나무이름패 재차지원비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금연전도사로 일러진 국립암센터 朴在甲(73년 醫大卒)원장이 1백세 장수를 위한 금연 강자를 밝혔다.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열게 된 趙英男(82년 師大卒)동문은 동문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경품 추첨 및 다양한 게임들을 선보였다.

"아내 오래 업고 버티기" 게임에서는 끝까지 부인을 놓치지 않으려는 남자들의 힘 겨루기가 폭소를 자아냈으며, 페이스페인팅을 한 어린이들의 골 공리기 게임과 이들의 주머니 속 동전들이 부워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예년보다 훨씬 많아진 경품 덕분에 시종일관 경품추첨권을 든 가족들이 당찬 승진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사법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원, 관악자연인화, 지리교육과 등 각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단합을 꾀했으며, 모교 재즈



'아내 오래 업고 버티기' 게임에 출전해 즐거워하고 있는 동문 부부들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동문 자녀들이 힘껏 공을 굴리고 있다.



모교 재학생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실사 댄스를 선보였다.



모교 재즈 동아리 '재즈 자이브'의 공연 모습

동아리 '재즈 자이브'의 트럼펫,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드럼 연주와 남녀 각각 네 명이 출연한 댄스 스포츠 동아리 '파에스타'의 실사 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대장동'의 메인 테마곡인 '오나라'를 독특한 참모로 부른 가수 이 안(04년 高大卒)동문은 특별 출연해 많은 동문 가족들로 부터 시선집행을 받았다. 국악과 대중음악의 조화를 통해 친근하면서도 한국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이 안 동문은 이날 그녀의 1집 타이틀곡인 '물고기자리'와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요' '응애야' '오나라' 등을 선사하며 대가를 장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서정연한 행사진행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린존(Green Zone) 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동문 가족들의 편

의를 위해 안영식(시장 價重太·72년 法大卒)에서 설치한 오토 도일 및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경품추첨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협찬한 승용차(대우 마티즈II)는 모교 관리과 기능직 공무원인 朴七右씨, 대입선생 李鎭鎔회장이 협찬한 스쿠터는 모교 총장비서실 행정주사 金連珠씨에게 돌아갔다. 또 대한항공 金利源 부회장이 협찬한 국내 왕복항공권은 車萬壽(61년 鐵大卒)·金振球(57년 韓大卒)·李鎭鎔(69년 師大卒)·高光祿(78년 高大卒)동문, 금호아시아나 朴慶容여회장이 협찬한 국내 왕복항공권은 金元鎭(87년 社倉大卒)·房基範(88년 工大卒)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롯데관광 金福熙회장이 협찬한 등산여행권은 원정위원 朴明河(85년 師大卒)원장의 차남인 宜順씨가 당첨됐다. (表)

동산대회 협찬 감사합니다

천목 동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찬·품을 출연해 주신 각계동문들을 소개합니다.

-지면 관계로 통칭 및 임원 분들의 사진 게재를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道昶



47년 法大卒·本會顧問
변호사
임금 30만원

河永基



48년 文理大卒·本會顧問
前한국은행 총재
임금 30만원

金相廈



49년 文理大卒·本會顧問
상업그룹 회장
임금 30만원

白樂院



51년 醫大卒·本會顧問
연계학원 이사장
임금 3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本會顧問
동아제약 회장
유료수 7천원

具平會



51년 文理大卒·本會顧問
BI 명예회장
임금 30만원

李聖秀



52년 師大卒·本會顧問
한국경제평가원 회장
임금 30만원

金在淳



51년 商大卒·本會名譽會長
前테라사 고문
오디오 1대

鄭雲燦



70년 商大卒·本會名譽會長
모교 총장
후산 3백개

林光洙



52년 工大卒·本會會長
임광그룹 회장
소형자동차 1대

孫一根



51년 法大卒·本會常任副會長
한국일보 상임고문
디지털 카메라 1대

明泰鉉



50년 工大卒·冠岳會理事
前총원기업 대표
임금 30만원

鄭哲圭



52년 工大卒·冠岳會理事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임금 30만원

朴晟容



50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
국내 항공항공권 2인 3배

劉鐘海



5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前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임금 30만원

韓斗鎭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한국병원 원장
임금 50만원

李信子



55년 美大卒·美大同憲會長
우덕문학회 회장
임금 50만원

李海遠



5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우덕문학회 회장
임금 50만원

李吉女



57년 醫大卒·本會副會長
경원대 총장
임금 40만원

朴熙伯



57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박희배정병의원원장
임금 50만원

金貞植



5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덕회 회장
임금 50만원

裴命仁



56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대영메크시스템 변호사
임금 30만원

鄭秉起



57년 醫大卒
한림제약사 대표
모교 교수 단행본 50권

辛東一



58년 師大卒·本會副會長
광동통신산업 회장
건국공정기 2대

朴嬢實



60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바산산업 회장
임금 50만원

金讚淑



60년 農大卒·本會副會長
장아지과학원 이사장
임금 50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本會副會長
박희배정병의원원장
아모니콘 골드 50개

梁源植



61년 商大卒·商大同憲會長
명원식피피의원장
임금 60만원

孔大植



60년 丁大卒·本會副會長
대영메크시스템 사장
임금 50만원

郭永駢



60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임금 50만원

丁海昌



60년 法大卒·法大同憲會長
홍문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임금 50만원

李竣鎔



60년 商大卒
대일산업 회장
스쿠터 1대

南正鉉



61년 工大卒·工大同憲會長
대우엔지니어링 회장
임금 50만원

孫京植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CJ 회장
CJ복지상훈권 10개

尹世榮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SBS 회장
디지털TV 1대

卞圭七



62년 法大卒
LG상사 고문
LG상훈권 30개

李惠星



62년 師大卒·本會副會長
한국정초년상담원 회장
임금 50만원

沈利澤



63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한항공 부회장
국내 항공항공권 2인 5배

洪性大



63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상산학원 이사장
DVD 골드 1대

安聖哲



63년 法大卒·冠岳會理事
유니온테크 회장
임금 50만원

孫吉丞



64년 商大卒·本會副會長
SK그룹 고문
위키티오회 식사권 5배

劉常夫



64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포스코 상임고문
임금 50만원

李海揆



64년 法大卒
삼성중공업 부회장
드림세탁기 1대

崔秉烈



6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삼국회계원
임금 50만원

卞柱仙



64년 師大卒·本會副會長
대림정보통신 행정원장
임금 50만원

姜光彦



65년 工大卒
롯데백화점 대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30배

李哲雨



65년 農大卒
롯데마트 사장
롯데리아 햄버거 교환권 30배

金英大



66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대성그룹 회장
임금 50만원

尹鍾龍



66년 工大卒
삼성전선 부회장
드림세탁기 1대

朴英俊



66년 商大卒·本會理事
백일준회계사무소 대표
임금 30만원

韓秀吉



67년 商大卒
롯데백화점 사장
스맥유 3원봉

金基炳



67년 行大卒·本會副會長
롯데백화점 회장
동남아 여행권 2인 1배

李燦河



67년 師大卒
신한회계법인 대표
임금 50만원

申碩鈺



67년 藥大卒·藥大院同憲會長
한국경제학회 건무이사
임금 50만원

朴泳俊



68년 法大卒·本會副會長
포리서지저널티 회장
임금 50만원

許瑄



68년 文理大卒
본회 사무총장
MP3 2대

姜相根



69년 工大卒
오성사 사장
가습기 2대

梁在鉉



69년 工大卒·RCTC同門會長
총합건축사무소 건원 회장
임금 50만원

李相暎



69년 農大卒
농협유통 사장
굴 3BOX

金建中



70년 文理大卒
LG경제정책연구소 사장
주유권 1만원권 50개

金泓殖



71년 經大院卒
금복주 회장
소주 1천개·임금 10만원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동양그룹 회장
가스 오븐렌더 1대

金周亨



73년 農大卒
CI 사장
CI신설SET 30개

朱成民



73년 法大卒·本會理事
김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임금 50만원

李鍾基



73년 商大卒·冠岳會理事
상원무역 사장
임금 50만원

崔炳敏



75년 文理大卒
대한컴퓨터 사장
물티슈 1통·크레디트 48개

鄭忠始



79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오미아코리아 사장
임금 50만원

등산대회 현차 동무

키로프 발레단
초대권 R석 2인 2매
인카 자동차 보험사
스푸트 손목보호대
(10월 22일까지 협찬해주
게재합니다. 이후 협찬자는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장학발달건립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조감도·입면계획 현상공모키로



좌로부터 洪性大·辛東一·金仁圭·尹勳煥·林光洙·孔大權·許理동문

본회 장학발달건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25일 서울 마포 동창회에서 林위원장을 대신해 許瑋사무총장이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吳東熙(82년 工大卒) 사장,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 洪性大(70년 工大卒) 회장과 '서울대동창회' 동시환경장비구역 지정 변경업무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장학발달건립위는 이날 오전 서울 신촌로 한 음식점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동창회관리지의 구역 지정 변경업무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문제를 제검토해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을 공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장학발달건립위는 '간삼파트너스'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 행정업무에 경험이 있는 '명승건축'을 포함시키으로써 본회가 계획하고 있는 적정 규모의

재건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 두 개의 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林위원장은 "항우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철의 중간 환승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 회관의 지리적 여건에 맞춰 최적의 건물용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도시계획 행정업무에 오랜 경험이 있는 명승건축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기로 했다"며 "최고의 장학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환승역과 장학발달이 현재 상권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며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발달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의관상으로도 모교의 위상에 걸맞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조감도 및 입면계획 현상공모'를 이번 하반기 본회와 대학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모교 교직원 초청 골프대회

成樂寅학장·琴震鎬동문 우승 차지

메달리스트에 張達重교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9일 인천그랜드CC에서 모교 교직원과 동창회 인원을 초청해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0여 명이 13개조로 나눠 신해리오방식으로 시합이 진행됐다.

오후 5시 30분 許瑋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林光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鄭學孝 장님을 비롯한 전 교수님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마치 내가 모교에서 노닐상 수상자가 탄생할 것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세계의 대학들이 벤치마킹하는 서울대가 되는 그 날까지 모교와 동창회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달려가자"고 밝혔다.

모교 鄭學孝장은 인사말에서 "동문 여러분이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모교에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변화가 필요한 순간마다 매서운 질책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을 서울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출인원을 바라기보다 오로지 과제이브를 하겠다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모교교비 비용 전액과 식음료 일체를 스폰서한 본회 鄭八道 부회장은 "주방에 이 골프장을 배려해주신 林光洙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드리며 좋은 날씨에 그리고

반가운 사람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金在學부회장은 "오늘 같이 좋은 날씨를 선사한 조별주에게 우선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하고 "모교의 발전은 조국의 발전"을 외치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 鄭八道부회장이 특지장학금 2억원(4구좌)의 추가 출연 기탁서를 林光洙회장에게 전달했다.



鄭八道부회장(左)이 林光洙회장에게 기탁서를 전달함. 상. 3조:許瑋사무총장

鄭부회장은 지난 99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특지 장학금으로 출연해 재학생 2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이날 林光洙회장은 유별한 자리를 함께 한 모교 鄭學孝장과 李美淑(학부처장) 본회 명예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전달했다.

본회 朴英俊회장의 경기결과 보고에 이어진 분상 시상에서 林光洙회장이 모교 교직원 중 우승을 차지한 모교 鄭學孝회장에 '동창회장배'를 수여했다. 또 鄭

學孝장이 동문들 중 우승을 차지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韓錫福회장에 '모교 총장배'를 전달했으며, 본회 金在學부회장이 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차지한 모교 사회대 張達重교수에게 '명예회장배'를 전달했다.

또한 최다 보기는 林光洙회장, 韓錫福은 모교 鄭學孝부회장, 나이리스트상은 1.5m를 기록한 모교 경영대 張基福교수, 동계스트상은 2백40m를 친 고려대 朴英俊교수에게 돌아갔다. 각 수상자에게는 종합건축 건원 梁在鉉회장이 합찬한 부상을 전달했다.

한편 본회 孫一振상임부회장과 辛東一부회장이 각 조별 우승자에

게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선목식)을 전달했다. 조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OUT코스 1조:李吉女 부회장, 2조:劉錫福부회장

3조:許瑋사무총장, 4조:참모그룹 李太興회장, 5조:모교 사대 權萬熙교수, 6조:모교 李承茂사무국장, 7조:모교 행정대원 李福熙교수.

▲IN코스 1조:韓錫福부회장, 2조:모교 외대 洪性大교무부장, 3조:李金鎔부회장, 4조:모교 黃善錫상관리국장, 5조:종합건축 건원 梁在鉉회장, 6조:인터비즈니스관 禹仁性회장.

이날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본회 李金鎔(임동제작 회장)부회장이 이리나리나 골드를 선물했다. (후)

알림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발달 조감도 및 입면계획 현상공모

모교 후배 재학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충하고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포 동창회관 지리에 역사상 최초로 장학발달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모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30만 서울대인의 이성과 열의를 담은 장학발달의 조감도 및 입면계획안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포내용: 입면관련 아이디어로 변화한 컨셉의 전개가 표현되어야 하며 표현방법 및 제출할 제한이 없음.

1. 공모기간: 2005년 1월 31일까지
2. 응시자격: 전 동문 및 서울대 재학생과 국내외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 및 이에 관심 있는 분
3. 건축규모: 부지면적-1,713.1㎡(518.21평)
건축면적-899.32㎡(272.05평)
연 면적-20,537.25㎡(6,212.49평)
지 면적-52.5%
용 적률-798.43%
기 모-지상 18층, 지하 5층
4. 제출내용: *투시도, 사진, 시뮬레이션(컴퓨터 그래픽) 등 각종 외관에 대한 자료
*서식: 제한 없음
5. 제출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우) 121-812
서울대 동창회 장학발달 건립위원회 (02-702-2233)
6. 시상방법: 2005. 2.
7. 시상내용: *당첨작-최우수상 (1점)
*우수상-우 수 상 (1점)

(지적 등 상생한 사항은 동창회 사무실로 문의 바람)
※ 당선자를 제외한 참고로 하되 규모,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당선자대로 설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식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아이디어는 본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발달 건립위원회

동문 화가 지상 전시회



金景愛作

'누가 내 꽃병에 꽃을 꽂아주지 않았나?' 수제종이에 혼합재료, 80×117cm 2004.

<작가약력>

- ▲81년 모교 미술동맹회 회원
- ▲91년 홍익대 대학원 졸업, 재회 개원
- ▲96~98년 제9회 중앙미술대전 특선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입선, 제1회 대한민국의 미술대전 특선
- ▲98~99년 일기전, 회원전, 우물수 '서울' 33 세를 한국화 비엔날레, 현대미술, 뉴미디어전 '교미' 보탈 아트 초대전, 조형과 작품서 및 초대전, 불-은-인-전
- ▲99년 한국미술-원색이 되다



부산지부

제5회 등산대회·야유회 개최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崔海城) 측은 수월지 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10월 17일 부산시 성지에서 4백여 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서울대 동문 가족 등산대회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회장장은 개회사에서 "따뜻한 교향과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자"며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여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심어주자"고 전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성지곡 삼림욕장을 출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이르는 2.5km 거리의 산행을 마친 동문 가족들은 제기차기, 윷놀이, 퍼구, 사정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어 최다참가자 시상과 함께 추첨을 통해 많은 경품을 제공했다.

의과대학

'자랑스러운 의대인상' 시상



좌로부터 王主彰·金萬經·宋寬鎬·李吉女 동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0월 10일 인천그랜드CC에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매리조트로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趙煥熙(65년추) 동문이

69타를 기록, 우승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趙煥熙(70년추) 동문이 2위에 올랐다. 메달리스트상은 72타를 친 李海龍(82년추) 동문, 봉계스트상은 2백25m를 기록한 李聖鎭(74년추) 동문, 나이라스트상은 홈에서 3.8m 거리에 안착시킨 崔正衍(74년추) 동문이 수상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연경캠퍼스의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졸업 4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金萬經(모교 내과 교수) 동문과 宋寬鎬(제1의대 동창회장) 동문이 '자랑스러운 의대인상'을 수상했으며, 18회 동문을 대표해 金萬經동기회장이 王主彰회장에게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마련 바자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嚴淑子)는 지난 10월 20~21일 모교 연경캠퍼스 간호대학 지하주차장에서 간호대학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동문이 기증한 생활용품 및 도서가 성품전에 판매됐다. 특히 기수발로 마련한 등산복코너, 명품의류 및 액세서리코너, 유기농 농산물코너, 수입의류코너 등은 일반 백화점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해 구애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회회장은 "2년마다 열고 있는 바자회 행사를 통해 1천만원~2천만원을 모아 간호대학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각 코너의 물품 판매를 위해 徐成禮(72년추)·宋寬鎬(72년추)·梁煥熙(72년추)·白金柱(74년추)·李海龍(74년추)·金萬經(79년추)·崔海城(79년추) 동문 등이 수고했다.

한편 간호대학동창회는 지난 10월 14일 연경캠퍼스 강연회에 강당에서 졸업 30~40주년을 맞이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기념 모교 방문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식품·의식산업 경영자과정

제 육대회·음식 경연대회

식품·의식산업전문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韓基永)는 지난 10월 17일 서울서대 부설아름 대운동장에서 동문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동문 가족

체육대회 및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각 기별 족구, 윷놀이, 퍼구 경기에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여준 14기가 종합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상금 30만원 등을 차지했다. 4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음식 경연대회에서는 尹煥植(4기·태명종합식품 대표)

동문이 출품한 일식우동이 으뜸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위해 裴柱柱(27기) 동문이 커피세트 50개를 협찬한 것을 비롯해 金萬經(17기)·高鎭七(27기)·鄭新潤(87기)·孫泰泰(13기)·金東錫·李泰奎·鄭基玉(이상 14기)·李海龍(157기) 동문 등이 주접한 경품을 제공했다.



캐나다 밴쿠버지부

원로동문 초청 만찬회 열어

캐나다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崔海城)는 최근 밴쿠버 소재 '서울로' (대표 李海龍·86년 社會大學)에서 盧永福(52년 工大추) 동문을 비롯한 51학번 이상의 원로동문 내외 20여 명을 초청해 추석만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후배동문 15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신임 총영사에 부임한 崔忠柱(77년 社會大學) 동문이 참석해 원로선배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제연합기구(UNIDO)에서 농약기술자문역으로 일하는 韓基永(60년 農大추) 동문이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겪은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충북지부

새 회장에 李輔獻 동문



충북지부동창회는 최근 청주시 내 '불로장' 한정식당에서 10여 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임

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는 오랫동안 회장을 대령해온 卞世南(53년 法大추·유네스코 이사) 총무에게 감사의 표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이보현법률사무소 李輔獻(63년 法大추) 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

李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랫동안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동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 파악에 주력해 동창회 활성화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계동문회

신임 회장에 孫郁東 동문



광대 기계동문회(회장 裴煥勳)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孫郁東(67년추) 상임인계발원장(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孫회장은 취임사에서 "오전에 산에 오르면서 동문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곱씹

히 생각해 왔다"며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개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계동문회는 '세계 제일의 기계공학파 육성방안'이라는 책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기계항공공학부 李煥堯(67년추) 교수는 "대학의 경쟁력 재고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산업계의 위상이 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기계공학교육을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판단돼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재학생 김도형·김상진·김현서·전정욱·민안기·정문영·임익환·이경대 군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생활과학대학

첫 홈커밍데이 행사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頌王)는 지난 10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졸업 30~4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초청해 첫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동문들의 모교 방문이 드문드

문 진행되기는 했으나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그간의 교류를 만나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모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생활과학대학관, 모교 박물관을 돌아보고 음식들을 초청해 감사의 선물을 전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문)



악화대학

제23회 동창의 날 행사 성황

악화대학동창회(회장 李金器)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족구와 윷놀이 등을 쏜 뒤 교수회관을 출발해 신촌로입구-도서관-관악교-제약실습동을 경유하는 4km 거리를 행보했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명랑 운동회에서는 한마음 공 튀기기, 사랑의 띠 잇기, 출발 OX퀴즈 등의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행운권 추첨 시간에는 LCD 17인치 모니터, 오

디오 세트, 정수기, 자전거 등이 경품으로 등장해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LCD 모니터는 金炳根(57년卒) 동문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를 위해 회장이 LCD모니터를 협찬한 것을 비롯해 李金器(49년卒·국동제약 회장) 명예회장, 李海政(49년卒·운무약국 대표)감사, 李世榮(61년卒·삼익 제약 대표)·李金鎬(65년卒·약사 공본 주간)·朴政一(79년卒·모교 교수)·李修任(79년卒·33회 동기 회장)등 동문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금속동창회

'금속의 날' 2백여 동문 참여

금대 금속동창회(회장 趙步)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길에서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65년에 졸업한 19회 동기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다참석 기수상에 선정돼 기념품을 받았다. 金宗義(58년卒)동문 가족이 7명이나 참석해 최다 참가 가족상을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3개 팀으로 나눠 빙고게임, 골프칩샷 대회, 팀별 노래자랑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흥운권 추첨시간에는 일진그룹 許漢奎(63년卒)회장이 경품으로 출연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기 위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



다. 다이아몬드 경품은 金道熙(66년卒)·李堉(68년卒)동문에게 돌아갔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진흥원 테니스 경기에서 姜春植(59년卒)·柳志昊(87년卒)동문조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농산업교육과

새 회장에 金鎬石 동문

농산업교육과동창회(회장 洪起容)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로비에서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출격민데이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출격민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화과를 위해 헌신하고 퇴임한 은사에게 기념산물을 증정했으며, 올해 대상 농촌문화상을 수상한 여주자연농업고 杜鍾廉(67년卒)교장과 경상남도 도지사에 당선된 金奎鎬(85년卒)동문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金鎬石(75년卒·계산교 교장)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창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동문의 단합과 학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과대학 바둑동창회

魯勝行 동문 바둑 우승

법과대학동창회 바둑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성환관 2층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추계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업무 및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孫京植회장이 재선임돼 동창회를 위해 2년간 더 봉사하기로 했다.

명지대 바둑학과 南容亨(98년 人文大卒·초단)교수와 趙東倫(69

년卒)동문의 기법대국으로 시작된 이날 바둑대회에서 魯勝行(63년卒)동문이 4전 전승으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12개팀(3명 1팀)이 출전한 단체전 경기에서는 21회에게 우승컵이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洪鍾賢(68년卒·9단)동문이 삼관위임장을 맡았다.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2위 30회, 3위 37회, 격려상 교수학생 연합팀, 애석상 22회 △개인전 2위 金成泰(64년卒)동문, 3위 柳二勝(61년卒)동문, 격려상 黃德武(64년卒)동문, 애석상 林鍾久(83년卒)동문.



耳順테니스회

친목·우의 통해 노익장 과시

耳順테니스회(회장 申秉燾)는 지난 10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43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는 8회조 및 耳順A·B조로 나눠 경기를 치렀다.

경기결과 8회조는 李奎植(49년 藥大卒)·安孝英(52년 農大卒)동

문, 耳順A조는 金源澤(58년 法大卒)·李慶佑(65년 師大卒)동문, 耳順B조는 成根基(57년 商大卒)·姜信玉(61년 法大卒)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임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8회조 준우승: 金明煥(51년 醫大卒)·韓甲珠(55년 醫大卒)동문, 3위 馬慶植(48년 工大卒)·趙東三(54년 農大卒)동문

△耳順A조 준우승: 沈道錫(60년 師大卒)·裴仁河(66년 文理大卒)동문, 3위 金敎成(55년 工大卒)·朴昌根(58년 師大卒)동문

△耳順B조 준우승: 金正澈(56년 工大卒)·朴仁鎬(57년 師大卒)동문, 3위 李昌健(58년 工大卒)·崔圭勇(57년 商大卒)동문.

(南)

서울대를 세계 속의 초일류대학으로 키우려면...

평준화 속 엘리트 양성이 독일 교육 살렸다

본보는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예측해 보기 위해 해외 우수대학의 교육정책, 엘리트 교육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미 소개된 중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특별 좌담

⑥ 독일의 대학교육

사 회: 유류연합(EU)에 선 'Erasmus(에라스무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연합국간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대학의 학생이 다른 EU 국가의 공립대학에서 1년간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유류연합이 이미 세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규 교수

우리 나라에선 대학간의 평준화 문제, 국·공립대 공평위계 등을 거론하면서 유독 독일의 교육과 비교하곤 하는데, 이에 독일에서는 어떠한 교육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반박이랄까 우수한 교육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金鍾洪: 독일은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 아이와 청소년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은 각 주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후 세 가지 교육기관 중 하나를 선택,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5세에서 16세까지 기초교육을 받다가 직업학교인 Berufsschule(마부투스쿨)에서 일반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이며, 실업학교인 Realschule(레알슐레)는 전문직업학교인 Fachschule(파흐슐레)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Berufsschule(간나지움)은 5학년에서 13학년까지 9년동안 고전·현대언어·수학·자연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으로,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보다 심도 깊은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를 이수한 학생은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Abitur(아비투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李光淑: 독일의 간나지움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를 이수

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3년을 대학에서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세미나식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고등학교의 중심식 위주 교육과는 달리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의 연속성, 토론위주의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徐丙詒 회장

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계열에 따라 학과목이 다르며 이를 전부 이수한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평가와 구두시험으로 구성해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고교수업의 내용과 평가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독일교육의 특징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교육부라는 소관 정부 부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각 주 간에 우수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을 배출



金鍾洪 회장

徐志源: 독일교육을 말하면, 소시적 즉 초등교육부터 인문과 실업교육 분야까지 교육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李光淑 교수



徐志源 동문

“9년간 김나지움 교과과정 거쳐야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자격 부여돼”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주에 있는 어느 고교수 연구실적으로 좋고 우수한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한다면 다른 주에서 그 고교수 옆에 본지 스카우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간에 연구실적과 연구프로젝트를 서로 발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徐志源: 김나지움과 같은 특수한 중등교육이 있다면,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종합대학(Universität)과 단과대학(Ho-

chschule)를 들 수 있는데, 고도의 전문대학, 즉 특수화된 고급기술대학 혹은 종합기술대학(Fachhochschule)이 각 지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기술전문대학은 13년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며, 매우 엄격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6년 동안의 수학을 마치고 나면 디플롬(Diplom), 마기스터(Magister), 국가자격 시험과정(Staatsprüfung) 등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1368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인 하인리히비르크대학에서 공부 하던 1976년에 설립된 베스트팔렌의 하겐 대학에서 수학을 하는 그에 따른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 회: 앞서 독일교육의 특징을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독일교육과 우리 나라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배경과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우리 나라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직후 동독 학생들의 공부방법이 우리와 비슷한 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통일 이후 서독 대학과의 홈페이지 등 학문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과 자율성이 교육에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徐志源: 우리는 수능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짧은 기간동안 배운 과정을 응용한 매우 난해한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의 잔을 다 빼고 있지만, 독일의 김나지움에서는 아주 평범한 교육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시켜줍니다. 특별한 대학명에 따라서 그다지 수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제를 일부러 평준화시키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학은 아비투어 자격만 있으면 입학하는 게 쉬우나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문이나 시험이 많기 때문이며, 아주 독창적인 것 아니거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어

요. 李光淑: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의 다양성 또는 유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입학에 관해 여러 제도와 규정이 우리 나라처럼 수시로 변하지 않으며, 변경되는 부분 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처럼 제도가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지 않

다는 것입니다. 사 회: 그렇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평준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얼마전 국내 최초로 서독의 역사를 다룬 '도이치 현대사'를 번역 출간해 최근의 독일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개인徐公으로부터 말씀해주시죠.

徐志源: 우리 나라 교육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시리트로 교육 재단회를 기획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교육을,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도구 내지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점에서 독일과 비슷합니다.



초등교육부터 진로를 결정하는 독일의 교육제도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세력의 기득권을 연장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사회비판이 많이 일어났다. 1969년 당시 빌리 브란트가 대대적인 교육 개혁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보상해줄 수 있는 교육을 확충하고, 둘째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셋째 학교 성격의 우열만 가지고 진로를 미리 확정해 버리는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할 것과 넷째 대학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섯 번째 대학의 전통적 구조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육을 정치와 이념은 정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인방정부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증강시키려는 수단이었고 당정이고 1971년 고등교육관계법(Hochschulrahmengesetz)을 상원에서 부결시켜버렸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개혁 주장하면서 교육개혁의 요소들, 즉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들이 겹쳐져서 나온 결과적으로 교육만 말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땅에 떨어진 독일의 학문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결국 교수들이 논문과 저작을 통해 대학의 정치화, 그로 인한 고등교육의 수준하락을 경고하고 문제를 제기해 겨우 독일교육을 되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徐光遠: 우선 독일은 통일문제, 경제문제 등에 있어 우리 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0여 년 동안 독일에 거주하면서 느낀 것은 공동체적 헌정정치가 반박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문제를 보다 중요시 여기며, 국민들의 지적수준과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역할을 할 엘리트, 즉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들어 대학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결국 국공립정이 황폐해지고 사회가 실패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광범위한 사회기제적으로 훈련한다는 직업학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과 인성을 기르는 이론·기초과학 분야를 강화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서울대가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李光洙: 독일과 한국교육을 비교할 때, 독일도 평준화돼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평준화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상황과도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평준화는 수단이 떨어진 하향평준화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재가 가르치고 있는 독일이 같은 경우 학생들이 1학년 때를 고교과정만 하느냐 2학년 올라가서는 원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아 문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에선 평준화라고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대학별로 큰 차이가 없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문화를 보다 더 강화해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金鍾圭: 앞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선 대학의 명성보다 큰 차이가 교육의 수준이라는 거, 연구성과가 전반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대 역시 우

리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라고는 하지만 독일이 말하는 평준화 개념과는 실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평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 회: 鄭東憲총장이 기초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모를 이루고자 인성문제를 삼각화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졸업 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李光遠: 한편으로는 연구와 교육을 계속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교육기관 간에 교육·연구활동의 제휴·협동·원조를 통해 기술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산학협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徐光遠: 우리 나라 교육부의 평정인 교육인적자원부를 살펴보면 사람을 오로지 인적자원으로만 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인재가 시급하다고 해도 인성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체육과목이 스포츠맨십, 인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바리새교, 사실 독일의 전문대학은 김나지움에서 13년간의 교육과정을 통과해 이미 주어를 가진 사람들에 이미 공부하는 곳이며, 석사과정까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2년제 전문대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국내에선 최근 여러 가지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에 있어 서울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모교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徐光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그 정 독일에선 이미 한차례 겪은 일들을 거둬서, 그들이 당시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관찰하고 속지를 탔던바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관용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하향평준화는 결과의 관용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국공립이 엄청나게 분열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경쟁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충분히 반성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우리 나라

함께 참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나야 할 때 걸작인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사 회: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동창회가 모교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독일에서는 아주 우수한 문물을 발표한 학생 또는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光洙: 독일과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모임의 주된 목적인데, 그런 점에서 학구적이고 좀 더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鍾圭: 최근 서울대에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나, 사실 그동안 서울대가 학문적인 배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대학이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용한 게 1963년입니다. 당시 신문학의 발견이라고 해서 마틴조다트 등 여러 대학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쾰른대학이나 뉘른베르크에서 고집스럽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독일은 그 분야에서 유독 발달이 늦어졌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서울대에서도 어떤 새로운 학문에 대한 보다 활발한 도입 등이 더욱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대학의 재정문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교육부에서 파견 오는데, 대부분 대학실정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에서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가 필요하면 예산은 남은 컴퓨터로 채우자는 식이죠. 독일에서는 각 대학별로 예산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어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각 분과별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사 회: 우리 나라에서 독일교육을 논할 때 엘리트,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독일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도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평준화 속에서 엘리트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 대학 전체를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과는 장기적으로 엘리트만을 양성하는 학과로 삼아 시키고자 할 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럽을 유럽만으로, 북일을 독일로만 보지 말고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서울대가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비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유럽 전체의 통합을 재촉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일을 일러면 유럽을 일컫지 않습니다. 독일을 따로 놓고 유럽을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약까지 그 대학의 좋은 제도와 정책들을 따로 따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봤을 때 어떠한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지, 세계화의 측면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조지마터 국가들,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등을 보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관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연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며, 우리 나라 교육의 진취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李光洙기자)



“안정된 교육제도·운영의 다양성이 독일대학의 전체 수준 끌어올린다”

기술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다시 시키려고 한다며 가르치는 교수도 없을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적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 회: 이러한 시장중심, 직업중심으로 대학교육이 흐르는 것과 鄭東憲총장이 모교를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봤을 때 양극화가 어느 정도 수용시킬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鍾圭: 최근 서울대가 학부정원을 줄여서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가고자 하는데, 저희 대학에선 대학원의 숫자가 축소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독일에선 특수화된 고급기술대학 혹은 종합기술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Fachhochschule 같은 전문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성분야를 집중해서 전문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성분야를 집중해서 전문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성분야를 집중해서 전문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사 회: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독일의 대학 하면 종합대학만 생각하고 전문대학, 소위 Fachhochschule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직업학교로 치부

최고의 엘리트교육기관으로서, 서울대가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徐光遠: 독일처럼 전통과 관습을 어느 정도 공인해 세력화하는 다음에 교육개혁이라는 것, 교육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沙上樓閣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학 평준화는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 무리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다수를 위한 교육은 타당한 인재양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두뇌가 발탁되는 유예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제왕이라는 자존심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대학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경계하며 받아들이기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李光洙: 사실 학교간의 질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시로 바뀌는 제도로 인해 소위 유럽 유럽, 추 산 나가는 학과는 계속해서 붕괴되고, 그렇지 않은 학과는 사정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각 학문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서도 대중이 원하는 학과만을 버릴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될 수 있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확실치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와 학생, 사회 전체가

경영대학

부리를 찾아서

상과대학 동창회

동북아 경제 이끌어갈 최고인재 육성

장학금·연구비 지원 등 모교 사랑 '훈훈'

경영대학은 서울대학교 종합학 계획에 따라 1975년 3월 경영학과와 단일대학으로 발족하게 됐다. 경영대학의 모체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경영학과, 대학원의 경영학과 및 경영대학원이 통합해 설립된 것이다.

경영대학의 전신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은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상하학과 경제학과가 개설됨으로써 비롯됐다. 그러나 상과대학의 기원은 1910년대 초에 설립된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는 1943년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편됐고 8·15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로 편입됐다. 상과대학은 상하학과 경제학과로 출발해 1959년에는 무역학과, 1962년 2월에는 경영학과가 설치됐다. 그 후 상하과는 경영학과로 통합됐다.

1975년 3월 서울대학교 종합학 계획에 따른 관악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으로, 경제학과는 무역학과와 함께 사회과학대학으로 편입됨으로써 경영대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63년 4월에는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상과대학 부설 한국경영연구소가 설립됐으며, 1975년에는 현재의 명칭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로 개칭됐다. 또 1976년 3월에는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교육하기 위해 6개월간의 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AMP)'이 설치돼 오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초기에 있어 경영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는 산업학, 경제학, 회계학이 중심이 됐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발전과 산업발달에 따라 교과과정은 더욱 전문화돼 오늘날 경영대학은 경영일반의 기초 위에 생산·마케팅·인사·재무관리, 회계학, 국제경영, 경영정보 등 기업기능을 중심으로 이론과 경영실무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교육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李憲宰(66년 法大卒)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삼성전사 尹鍾龍(66년 工大卒) 부회장 등 다양한 현직경험을 갖고 있는 전·현직 CEO들을 초빙교수로 초청하고, '경영자초청특강' 시리즈를 개설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경영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환경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 일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세계 수준의 교수들을 임용하여 교수진을 구성하고, 4개 전공분야에 5명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경영

학 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일환으로 경영대학은 단일대학으로는 최초로 국제교류협을 개설하여 11개국 26개 경영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으며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학생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2년 3월에는 세계 일류 경영대학인 미국의 Duke대학, 프랑스의 ESSEC대학과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했다.

한편 2002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세계 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International: AACSB)로부터 경영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인증을 얻어 모교 경영학 교육의 수준을 입증했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세계 일류 경영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 차동재(75년 商大卒) 모교 경영대학 학장



모교 관악캠퍼스 58동 경영대학 SK경영관

■ 연 혁

- 1945년 10월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모교로 편입
- 1946년 8월 경영대학 전신인 상과대학이 상하학과 경제학과로 개설
- 1962년 2월 경영학과 신설
- 1963년 4월 상대 부설 한국경영연구소 설립
- 1968년 12월 상하학과 경영학과로 통합
- 1975년 2월 서울대학교 상대 해체에 따라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무역학과로 분리
- 1975년 3월 종합동 상과대학 교사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
- 1976년 3월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 1989년 3월 노사관계연구소 설립
- 1989년 6월 경영정보연구소 설립
- 1991년 1월 SK경영연구소 교사 이전
- 1992년 1월 증권금융연구소 설립
- 1995년 영문지정인 'Seoul Journal of Business' 발행
- 1998년 LG경영론 및 산학협동론 개편
- 2002년 3월 경영개발심화과정 개설
- 2002년 3월 세계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국내 최초로 획득
- 2003년 11월 제1회 서울대학교 경영대인의 밤 개최

1921년 상과대학의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가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1925년 3월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이 탄생했다. 1938년 종합동으로 이전한 후 1946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75년 지금의 관악캠퍼스로 이전,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무역학과(국제경제학과)로 분리됐다가 다시 경제학부로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과대학 총동정회는 상과대학 전신은 물론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모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오늘날까지 1만9천여 동문들의 교향으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동창회 태동기에는 해방직후 각 분야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故 李在宰(25년卒·前대한상업의 부회장) 초대 회장이 중심이 되어 6·25전쟁 등 혼란기 속에서도 주 소 불명 등인 동문들의 연락처를 발굴, 1957년 최초의 회원명부를 발간하게 됐다. 그 후 1963년 6월 총회에서 故 차동재(32년

卒·前동양맥주 회장·대한상업의 회장)회장이 선임돼 공식적인 동창회 조직이 재정됐으며, 동창회보를 연2회 정도 발행하기로 한에 따라 '서울대학교 상대 동창뉴스'는 1963년 9월 초판 3천7백부가 배포됐다.

8대 故 金鎭澤(32년卒·前한국은행 총재) 회장에 이어 1975년 5월 故 李穆稙(35년卒·前산업은행 총재)동문이 9대 회장으로 취임, 1975년 1학기부터 상과대학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무역학과로 분리되고 상대 명칭도 소멸됨에 따라 동문들을 구할하기 위해 '동치자, 놀자, 빛내자'를 구호로 결속을 다짐했다.

1978년 11월에는 모교 상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쉬움을 달래고자 종합동 5교지인 송림의 숲(향상림)에 교과목·'향상의 황'을 건립했으며, 1985년 5월 14대 회장에 선출된 故 張維熙(49년卒·前상공부 장관)동문은 회원간 단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200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차동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람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12월 高荷佑(56년卒·前건설부 장관)동문이 21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재단법인 '향상獎學會'를 '서울商大 向上獎學會'로 변경하고, 국제화 잡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을 작성한 교수에게 1억원의

학술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해 2001년 12월 총회에서 '제1회 융합의 교수상'을 시상했다. 그밖에 새로운 사업으로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1회 상대인 경기대회가 2000년 10월 3일 모교 관악관에서 2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해 기운을 올렸다.

한편 지난 1963년부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2000년 2학기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현재는 경영학과 20명, 경제학부 20명 총 40명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 2002년부터 장학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부족을 선후배들 1대 1로 연결하는 특장장학회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2월 22대 회장에 취임한 차동재(65년卒·대한상업의 회장)회장은 2~7대 회장을 역임한 故 차동재와 3남으로, 둘째 이이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홈페이지(sangdae.com/서울상대.kr)를 통한 소식의 전파로 만들어 동기 모임, 동문 경조사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배너광고를 유치해 그 수익금은 모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현장시절 마걸리 마치고 홀알대인 상대 동문가 '노나 마시마알 만나야...' 그대 음원가를 부르면 부르면 그대 이름을 다시 한번 '동치자, 놀자, 빛내자' 구호로 동문들의 화합력과 동창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글: 崔海寬(76년 經寬大卒)동창회 사무국장

“투명경영·노사화합·고객신뢰가 기업의 장수비결”

동문을 찾아서

심양그룹 金相廈 회장

1924년 10월 국내 최초의 근대적인 기업형 농장으로 출발해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삼양그룹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 새로운 기업 통합이미지(CI)를 발표하고 중장기 비전을 내놓았다.

본의 고문인 삼양그룹 金相廈 회장은 1949년 모교 문리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반세기동안 삼양사에 몸담아왔다. 삼양사 경영인으로 출발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유수의 경제단체 및 기관의 대표를 거쳤으며, 대한농구협회장, 한국장도문화개발한국협회 이사장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드물다.

우리 사회, 이 시대의 명실상부한 리더 중 한 분인 金相廈을 만나 근황과 삼양사의 장수비결·향후 계획, 동문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등을 들어보았다.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후 요즘 어떻게 지내시지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년 동안 봉사한 후 삼양사에 돌아온 지가 벌써 4년 반이 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의무 활동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요즘도 한국장도문화개발한국협회 이사장, 한일경제협회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양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金 銓희에게 거의 다 일임했어요. 저는 주로 신규사업의 계획수립이나 삼남석유화학, 삼양화학 등 계열사 중에서도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 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 미쯔비시와의 합작회사 업무 등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 대한상의 역대 회장 가운데 반수가 서둘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대부터 현 18대까지 총 12명의 회장 가운데 차두환(32년 京城 高南우·6~8대)·동문, 太完壽(36년 京城 高南우·9대)·동문, 金永萬(42년 京城 大 法文學部卒·10대 초반)·동문, 鄭壽昌(41년 京城 高南우·10대 후반~12대)·동문이 회장을 역임하였고, 13대부터 16대까지 제가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17~18대 회장으로 차영환(65년 高南大)·동문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은 우리 나라에서 존경받는 재계 원로로 손꼽히는 분이면서 대외활동도 아주 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셨는지요.

기업경영에만 전념하던 제가 본격적인

대답 : 본보 南仲九는심위원
(동아일보 평화연구소장)

대외활동을 편치게 된 것은 1988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商議회장에게 추대된 이후 3년 임기를 네 번 연임하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노력했지요.

또한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취임 이후 소수정예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1998년 IMF사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요의 압력에도 무난히 대처할 수 있었지요.

1991년에는 유동정보센터를 설립해 국내 유동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고, 1994년에는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원을 인수해 매년 수백명의 전문인력을 산업계에 배출해왔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로 기업구조조정과 외자유자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1998년 기업구조조정센터를 설치해 회원사 비스를 강화하는 물론, 은행권과도 결선회



이사장 등 체육계, 문화계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12년에 걸쳐 대

계 해운 삼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삼양은 국내 최초로 근대적인 농장경영을 시작했고, 간척사업과 개간사업 등을 통해 비좁은 국토를 넓히는데 앞장섰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舊만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당과 풍미에스테르 화학합성을 중심으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삼양은 화학, 식품, 의약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 국가 경제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맹재단(養英財團), 수당재단(秀堂財團) 등을

통해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것 같아 뿌듯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삼양사에 대해서 좀더 소개해 주신다면.

삼양사는 1924년 순수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건설한 안정성장을 중시하는 가운데 제당사업을 비롯한 식품산업을 시발로 70년대에는 화학합성사업에 진출했고, 80년대에는 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90년대에는 의약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60년대말 화학합성사업에 진출키로 하고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의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의 전주를 택한 바 있습니다. 이미 물산에 공작용기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호남지역에 대단위 공장을 세움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었지요.

— 노사화합의 전통도 삼양의 자랑거리라고 보이네요.

맞습니다. 1966년 노조가 설립된 삼양은 80년대말 극심한 노사분규로 온 나라가 혼란گیر 때로 큰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수습하기보다는 평소에도 노사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1976년 이후 전 사원제 도입, 지급금 임금 격차의 점진적 축소,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을 타기업 보다 조금 앞서 실시한 것은 언뜻 작은 제도변화에 불과한 듯하지만 노사의 신뢰를 높이는 축진제가 됐습니다.

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삼양사의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지요.

“養英·秀堂財團 통한 인재양성이 큰 보람”

三養訓·中廬의 자세·성실·인내 몸소 실천

벤처기업 육성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 한중간경제협회의 초대 회장과 한경보전협회회장을 지내셨는데,

1992년 한중간경제협회의 초대 회장에 취임한 이래 국교 수립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 교역과 투자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했지요. 특히 1993년에는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진출업체들의 중국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환경보전협회 회장을 맡아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한 대화원 사업을 강화했지요. 또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정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직을 맡아 민간의 가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98년 한일경제협력회 취임 이후 현재까지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수출촉진단 파견, 투자조사단 유치사업 등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재계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한농구협회장, 한국장도문화개발한국협회장

한농구협회회장을 역임했지요. 취임 당시에는 농구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나 인화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농구대잔치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농구부를 조성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국제화, 저변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한국 농구 미래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결실로 지금의 프로농구가 다른 종목과 달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는 새로 출범한 한국장도문화개발한국협회장과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매점문화에 비해 화장(火葬)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무엇보다 우리의 장묘문화 개선에 정성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저도 사후에 화장을 할 예정이지만, 요즘은 남묘(南墓)뿐만 아니라 산묘(散墓)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화장의 습관을 뿌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추모의 숲'을 꾸미는 거죠.

— 그동안 삼양은 국가 경제의 건인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김회장이 어떠신지요?

제가 삼양에 몸담은 지도 벌써 만 5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삼양과 함



☑ 창업자이신 선친(秀堂 金季洙)이 1939년 나라를 구할 인재육성을 위해 사재들 털어 장학재단인 양명재단을 설립했고 1968년에는 수당재단을 설립해 육영사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재단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국가의栋梁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삼양의 장수비결은 무엇일까요.

삼양이 8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은 내성경영,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화합, 고객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이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아래한 정도경영은 창업자의 가르침인 '양복(養福), 양기(養氣), 양재(養財)'의 삼양론(三養論)과 '중용(中庸)'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분수를 지켜 복을 기르고(養福),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욕망을 절제해 기를 기르고(養氣), 비용을 절약하고 낭비를 삼가며 재를 기르라(養財)는 삼양론과 분수를 넘는 사업확장을 자제하면서 정도를 지키는 중용의 지혜는 오랜 세월 삼양을 지탱해준 뿌리입니다.

삼양론과 중용의 정신으로 80년 동안 주변여건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온 성실과 인내가 오늘의 삼양을 있게 한 것이지요.

다소 보수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시대에 맞게 우리의 기업문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온 것도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삼양은 김 윤희회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IMF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속적이면서 꾸준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김 회장의 그동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리고 삼양사의 창립총회장, 김 순사장을 비롯해 여러 계열사 사장들의 충실한 보필 또한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창립 8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삼양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C재정,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삼양이 최근 새로운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은 앞으로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화학, 식품, 의약, 신사업부문을 핵심 성장 사업군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성장 사업군이 우리의 핵심 역력인 연구개발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의 다각화, 사업구조의 고도화, 해

외진출을 통한 Globalization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고객 중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인재 중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성과 중시의 기업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가족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부인이신 朴善英어사와는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제 가족을 소개하면, 집사람과 沅, 愼, 宇媛 이렇게 2남1녀를 두었습니다. 집사람과의 결혼이야기를 물으셨는데, 벌써 50년이 다 돼갑니다만 저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중매결혼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사회에 음분의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요즘도 다양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건강비결이 있다면 동문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전에 비하면 활동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특별한 건강비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밖에 일주일에 서너번 아침 산책과 한달에 2, 3회 치는 골프가 전부입니다.



— 서울대 동문으로 살아오 시면서 좋았던 점 혹은 불편하셨던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후배님들께서 우리 서울대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신 덕분에 저도 더불어 인정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으로서 좋았으면 좋았지 불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서울대를 졸업하 한다는 말이 가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 동문, 특히 후배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서울대를 졸업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오히려 저는 그대 더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대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원인에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치려는 말씀은 못 드릴까나던 이 기회에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발전시킬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서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인정받는 서울대 동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동창회보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항상 서울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선·후배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 서울대의 위상을 그만큼 높이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성과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이 되도록 우리 동창회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병호기자)

“고객·인재·성과 중시하는 기업문화 육성” 火葬·散骨 등 장묘문화 개선에 정성 기울여

—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큰 아들 沅이는 연세대 화학과를 나온 뒤 미국 유학에서 재료공학과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삼양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인 愼이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MBA를 마친 후 외국계 은행인 뱅크스트리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삼양사의 계열사인 비즈시와의 합작회사 삼남 석유화학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인 宇媛이는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사위는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는 모나미 지프사(인) (주)가환소를 경영하고 있는 宋河養사장입니다.

— 자녀들에게 강조하시는 인생철학이 있다면.

인생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는 자식들에게 성실, 인내의 마음가짐과 사회 공헌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우리 인간의 덕목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수반할 일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자는

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운동 등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남고(南阜)라는 호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시경(詩經)을 보면 학령우고(鶴鳴于九皋)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고상한 학이 가장 높은 언덕에서 운다는 뜻으로 아주 상서로운 길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뜻이 담겨있을 까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40세쯤에 로터리 클럽 회회장을 하려는데 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님들에게 여쭙고있더니 이미 4~5세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형제들에게 남자 돌림으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 정치학과 총동창회장(89년~91년)을 역임하셨고, 1980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내시고 현재 고문으로 계시는데, 동창회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서울대 출신의 동문들이 현재 각계각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학교보다 많은 인재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총동창회에서 모든 동창들

대림성모병원 卞柱仙행정원장 화제의 인물 롯데관광 金基炳회장

제5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받아

여행업계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훈

“金活蘭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라 여성지도자의 표본으로 평소 존경해 오던 분입니다. 이분의 뜻이 담긴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대림성모병원 卞柱仙(64년 師大卒) 행정원장의 담담한 소감이다. 卞동문은 ‘96년 한국철스카우트연맹 총재로 재직 당시 인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은코끼리상(Silver Elephant)’, 2001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에 이은 세 번째 큰상’이라고 했다.

卞동문은 지난 5월 세계철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직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6년 연임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세계 5개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모아 세계연맹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7개국 아태지역의 대원들이 卞동문을 떠나 보내며 선물한 ‘편지앨범’에는 ‘Superlady’, ‘Superwoman’이란 단어가 빼곡했다.

“정말 즐겁게 일했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더불어 사는 가치를 높이 사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죠. 슈퍼우먼, 슈퍼레이더란 별명은 제가 정말 좋아서 일하느라 자연스럽게 얻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卞동문의 슈퍼우먼적인 면모는 그가 맡고 있는 ‘김투’의 숫자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병원 두 개를 운영하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도덕재무장 이사, 한국복지재단 이사, 본회 부회장 등 갖고 있는 임원직만 10여 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 卞동문은 “선진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체력과 배움이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



라고 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남편의 배려라고.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남편의 결혼 약속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비쁘게 활동하다 보면 엄이로서, 아내로서, 친구로서 그들에게 소홀할 때가 많을 텐데, 이를 편지로 훌륭히 메우고 있다. 卞동문이 있는 곳에는 항상 편지와 편지 준 비워 있어 시간 날 때마다 편지를 쓴다. “장을 가장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게 편지거든요. 편지덕분에 오히려 저한테 빚졌다 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정도예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 지는 참 부자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卞동문은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11월중에 아동권리 모니터링 종합발표회를 갖고 우리의 아동권리 현황을 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인 시민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南)



최근 우리 나라 관광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한류’이다. 기존에 관광이란 우리의 옛 고적지를 찾아다니며 소개하는 정도였을까. 하지만 이 한류 열풍을 통해 관광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

이처럼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는 시점에 지난 9월 24일 ‘관광의 날’을 맞아 업계 최초로 롯데관광 金基炳(67년 行大院卒·본회 부회장)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金회장은 “한국인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관광시장을 연결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 허브이며, 관광산업이 아랍로 21세기 한국경제를 발전시킬 중요한 전략산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고 “관광업 총수지는 2백30만명 정도로 경제활동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관광업의 중요성을 전했다. 또 관광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 친절하고 항상 미소 띤 여유 있는 국민들이 돼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최근 金회장은 철도청과 합작투자 형태로 ‘KTX관광레저’를 설립해 새로운 관광열차 여행 개발과 함께 대륙 및 북한을 잇는 관광을 신선했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金회장이 처음 관광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3년 상공부 국장을 마치고면서 당시 제조업은 수출을 통한 마진율이 상당히 낮고 가치의 재창출이 어려운 반면 관광산업은 미래 산업으로써 유망사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金회장은 일반인들의 국내 관광이 허용되면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인들을 통해 관광산업의 가치를 본 것이다.

현재 金회장은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붐을 일으키는 한국 관광붐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 관광의 내실을 다지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金회장의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은 관광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교육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한 金회장은 1979년 미림여고를 세워 우리 사회에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를 해왔다. 또 1984년 미림여고 브라스밴드부 졸업생들로 구성된 미림콘서트밴드를 탄생시켜 지난 10월 20일 KBS홀에서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金회장은 미림콘서트밴드 회장을 맡아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며 밴드부에 정성을 쏟고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미림콘서트밴드는 만생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유망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1백인조 브라스밴드이다.

金회장은 “다행히도 오랫동안 밴드부가 유지돼 역시 깊은 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음악에 대한 열정과 교육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뜻 깊은 순간은 없었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여성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李)

모교 소식

개교 58주년 기념식

“기초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金允範·朴英珠등문



모교 개교 58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본교 林光洙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 李奎女부회장, 모교 鄭壽鎬·鄭元奎·李賢宰전임총장, 鄭壽鎬총장, 李鍾仁부총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중앙도서관 李重奎사서사무원 등 33명이 30년 근속, 기획담당반장 金紀龍교육행정주사 등 95명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 관악분사장은 학생 부문에 이기혁(의학과 3년)·김병섭(교육학과 3년)군과 후원자 부문에 1989년부터 지금까지 벼내·광대 재학생 중 40명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함으로써 법조계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한 장영교육장학재단 金斗璜(49년 釜大人)이 사장이 수상했다.

이어 제1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메사키고에 의해 미생물

학 및 면역학 金允範교수와 이진산업 朴英珠회장을 선정, 종사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鄭壽鎬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대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당지를 줄일 수밖에 없기에 신입생 정원율 대폭 줄이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내실을 다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가 이번엔 처음 시행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서울대가 제출한 ‘창의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계획’이 1위에 선정돼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기초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7면사 오지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한문단 ‘서울대 폐교론’이 유독

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대인들이 누리는 우월적 지위를 좀더 나누고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고 국가 발전에 더욱더 공헌한다면 자연히 일부 왜곡된 시각이 사라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하는 동정화관을 갖는 장학방당이라는 컨셉트로 건립하여 더 많은 후배들이 언제나 등록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축사 오지 참조)

金允範교수는 “모교 외대 재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학을 하는 처지에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어 언제나 모교에 빚을 진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며 “머나먼 미국 땅에서 언제나 모교의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찾던 중 무궁화대를 기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해주시니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수상사를 밝혔다.

朴英珠회장은 수상소감에서 “각 변의 시기를 거쳐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많은 서울대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사회에 흐르는 냉소주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쓰고자”고 전했다.

이외 모교 대학원의 축하 공연과 함께 개교기념식 일정을 마치고 각 수상자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오찬 시간을 가졌다. (후)

鄭雲燦총장 개교기념사 (요지)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심지어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마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자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연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우선 서울대학교는 학사과정 신입생 정원율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거의 20%에 달하는 6백25명을 감축하는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지를 줄일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교육자책을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뼈를 노력으로 서울대학교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학부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우리 사회 최고의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그것은 우수한 학생들의 강한 학부적 동기와 훌륭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정투자가 없이 좋은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학부후속세대를 위한 장학자원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1천6백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원폭을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후속세대 양성과 함께 서울대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넓고 깊고 있는 소양과 창의력, 그리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지식인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교육혁신사업에서 처음 시행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창의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계획이 1위에 선정돼 적지 않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초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학부후속세대의 양성과 기초교육 강화도 궁극적으로는 교수님들의 왕성하고 탁월한 연구교육활동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낙후된 연구시설과 빈번히 많은 연구지원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일에 은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에 장려가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연한 지원체제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단 행정과 운영체제와 교육·연구에 걸맞게 최첨단 자물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한 정치적인 이유나 편향된 사회조류에 의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일체의 제약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때 비로소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하게 교육과 연구의 자물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대 金允範교수

金允範(右)는 1958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에서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미네소타대학과 시카고대 의대에서 미생물학 및 면역학 연구와 교육에 기여해왔다. 또 지금까지 미생물학 및 면역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자로서 한국인의 공지를 높여왔다.

미네소타대학에서 박테리아 감염이 나타나는 면역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테리아 독소연구에 몰두했고, 면역학에 가장 이상적인 실험동물 모델인 ‘Minnesota miniature germ free swine model’을 개발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동물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돼지모델을 미국이 아닌 모교 의



대 李莊載교수에게 무상으로 기증해 동물복지의 권위자인 수의대 黃禹錫교수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 이중 이익연구를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만들었다.

제1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이진산업 朴英珠회장



술판 개축 공사를 하여 술로문군도 정부와 국민에게 기증했으며 이진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 의원지원 및 장학사업을 하고 농경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차회장(右)은 1963년 모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진산업을 설립해 인간 중심의 경영관과 기업에 사회의 공익을 보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공지를 높여왔으며, 나무를 통한 인간 사랑과 자연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데 헌신해왔다.

일찍이 목재자원을 적절 개발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으로 판단, 미국·중국·칠레·솔로몬군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과 지사를 설립하여 원자재와 시장을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솔로몬군도에서 조림사업을 하여 환경사업과 목재자원 보호사업에 앞장섰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카라미

林光洙회장 개교기념 축하 <요지>

건국 후 혼란기에 탄생한 모교가 역사의 소용돌이와 부침 속에서도 학문의 기본을 굳게 지켜왔음으로써 우리 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으로堂堂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교 58주년의 축전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신 동문과 간속 공로로 표창을 받는 교직원 여러분께 분인은 30만 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하를 마지않습니다.

40여 년간 밤낮 없이 연구해서 걸려낸 세계적인 규모의 무관 폐지 실험실을 모교에 기증함으로써 한국의학과와 난치병 치료의 새 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신 사끼고 약대 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金九範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연구비도 한국 학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보전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합관 및 목재가공 전문기업인 이강산업을 선두에서 서서 30여 년간 이끌어오신 朴美惠회장님께서는 사업에 가장 환경친화적인 자원을 장기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우수한 목재자원을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였고 특히 이천재단을 설립해서 의료지원, 장학사업 및 농경기술을 전수하며 사회봉사를 실천해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야말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문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연초부터 한동안 '서울대 폐교론'이 유포돼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더니 요즘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리나 사고방식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서울대인들이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좀더 나누고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삶을 실천하고 사임이나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더욱더 공헌한다면 자연히 이 같은 일부의 왜곡된 시각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동창회에서는 보고와 공으로 '서울대 폐교론'에 대한 특집 단행본을 발간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리석은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대응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정경회관을 장학빌딩이라는 Concept으로 건립하여 더 많은 후배들이 언제나 등록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학빌딩이란 건립기금을 내신 분에게 매년 소정의 은행예금 금리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분의 명의로 영구히 그가 원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Top 10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국가발전에도 가장 많이 공헌을 하는 서울대, 세계의 대학이 벤치마킹하는 서울대가 되는 그 날까지 서울대인들이여! 다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달려갑시다.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덴류 코리아' 캠페인 출범 알리



모교 관악캠퍼스 내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IVI)(소장 존 클레멘스)의 한국후원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덴류 코리아(Thank you, Korea!)' 캠페인 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白文基교문, 金在淳발족회장, 林光洙회장, 尹東一... 鄭八道부회장, 朴英淑감사, 許庶社무총장, 李世慶경에서 무총장을 비롯해 IVI 존 클레멘스 소장, 한국후원회 趙冠奎(52년 文理大卒·한국생물산업협회장)이사장, 黃錫鎭(77년 慶熙大卒·모교 석좌교수)이사, 상근관계 權義赫(47년 醫大卒·모교 전임총장)이사장, 宋寅準(67년 法大卒)헌법재판관, 崔所文(42기 ACAD)경향청장, 청와대 朴基榮정보과학기

보서관 등 저명인사 2백50여 명이 참석했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잠대 빈곤의 너울을 걷어내고 경제개발에 성공한 한국이 IVI유치의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이로운 주목을 받았다"고 말하고 "IVI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 수준과 젊은 학도들의 연구 의욕을 한층 불태우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趙冠奎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에 처음 유치한 국제기구인 백신연구소의 성공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도 인도적 사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IVI후원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백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방대한 모금 운동인 '덴류 코리아'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앞으로 IVI후원회는 2007년까지 1천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우리 나라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모교 관악캠퍼스 내 연구소 본부 건물을 IVI에 전달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테너 朴世源(72년 普大卒·모교 교수)·소프라노 朴美惠(83년 普大卒·모교 교수) 동문의 축가가 있었으며 패션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이 IVI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1997년 설립된 IVI는 현재 33개 국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쿠웨이트와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회원국 가입 의사를 통보받았다. IVI는 16개국 출신 90여 명의 직원을 두고 12개국 29개 지역에서 현지 연구활동을 수행중이며 올해 백신개발을 위한 실험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IVI는 각종 정부·기업·재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빌 게이츠 재단은 약 9천3백만 달러를 연구기금으로 IVI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IVI지원을 위해 조직된 한국후원회는 70여 명의 저명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 영부인 權美淑여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의과대학

한의학 석·박사 양성

의과대학(학장 王孝彰)은 지난 10월 21일 한의학교실을 신설하고 인양과 한방의 단일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대 내 주임교수회의와 전제교수회의를 잇따라 열어 학내에 별도의 한의학교실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최종 보고서를 모교 본부측에 전달했다.

이번 한의학교실 설치 결정은 모교 의대 내에 한의학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달라는 보건복지부

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의대는 우선 한의학연구소를 학내에 설립한 뒤 별도의 한의과대를 신설하지 않고 전공과목 중 하나인 한의학교실을 편 한의학 분야 석·박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후)

동경

수상

▲李惠求(31년) 京城府大卒·모교 국악과 명예교수)=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우리 나라 대표적인 국악이론가로서 서양음악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악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음.

▲金瑞蓮(54년) 美大卒·한국미술협회 고문·서양화가)=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미술인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成百仁(56년) 文理大卒·모교 언어학과 명예교수)=지난 10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제26회 대한언어학회 제정 제26회 어문상(문화부문)을 받음.

▲李相滿(56년) 華嚴大卒·인촌관역시 흥진공 공수)=지난 10월 2일 제8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음.

▲林漢慶(57년) 醫大卒·前한국간호관리협회장·고려대 명예교수)=지난 9월 29일 중국 기성총 회차에 기여한 공로로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우의장(友誼獎)'을 받음.

▲李仁浩(55년) 文理大·명지대 석좌교수)=지난 11월 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최한 제4회 비추미 여성대상 시상식에서 예리상(여성지위향상·권익신장부문)을 받음.

▲南正斌(61년) 工大卒·대우엔지니어링 회장·공동회장=지난 10월 1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1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총장 혁신상을 받음.

▲林松子(63년) 美大卒·중앙대 교수·조각가)=지난 11월 9일 서울 조선일보사 미술관에서 제16회李仲燾미술상을 받음.

▲金柱煥(64년) 文理大·숙명여대 교수)=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문학 평론을 통한 건전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鄭永和(65년) 文理大·영남대 교수)=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각종 문화제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鄭玉子(65년) 文理大·모교 국사학과 교수)=지난 11월 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최한 제4회 비추미 여성대상 시상식에서 별라상(교육·연구개발부문)을 받음.

▲韓章泰(66년) 文理大·모교 종교학과 교수)=지난 10월 10일 성균관대대성전에서 시단법인 유교학술원이 제정한 제1회 유교학술상을 받음.

▲徐賢錫(61년) 高大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지지체 소속 오케스트라를 창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음.

▲李清俊(66년) 文理大·순천대 석좌교수·소설가)=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제36회 대한민국 문학에술상(문학부문)을 받음.

▲金文煥(68년) 文理大·모교 미학과 교수)=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문화예술의 이론적 연구와 교육에 앞장서 심전해는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張炳奉(72년) 法大卒·고려대 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0월 17일 서울 행당동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헌법학술상을 받음.

▲辛鍾柱(73년) 商大卒·코스닥증권시장 사장)=지난 10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팬치 코리아 2004' 흥

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朴東延(77년) 家政大·KBS 아나운서)=지난 10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558를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음.

▲金汎내리(92년) 自然大·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10월 15

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지법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로부터 제1회 마크로본 신진과학자상을 받음.

▲朴明植(94년) 大學院卒·마산대 한약재 개발과 교수)=지난 11월 3~7일 일본 시즈오카시에서 열린 2004 국제차학대회에서 조직위원회로부터 우수연구발표자로 선정돼 Research Award를 받음.

이동

▲文熙鳳(57년) 工大·前한국에너지협회장·한국산학협 명예회장)=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산업연맹 주관으로 열린 국제산

악연맹 총회에서 명예부회장에 선임됨.

▲孔龜明(61년) 法大·前외교통상부 장관·한일대 일본학연구소장)=지난 10월 1일 함경북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촉됨.

▲李承宇(63년) 工大·한국건설기술연구회장)=지난 10월 7일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제3대 회장에 선임됨.

▲吳明(66년) 工大·과학기술부 장관·문화부회장은=지난 10월 1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됨.

▲金在璽(68년) 文理大·前외교통상부 차관)=최근 주러시아 대

사에 임명됨.

▲鄭海濤(68년) 法大·前전주신업대 총장)=지난 10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선임됨.

▲李敦求(69년) 農大·모교 산림과학부 교수)=지난 10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육관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曹華鉉(73년) 工大·유니스트 대드 대표·관악무역인 회장)=최근 대인과의 교육증대를 위해 발족된 한·대만 민간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崔明玉(73년) 文理大·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9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한국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

서 열린 한국반인도학계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成相哲(73년) 醫大·모교 병원장)=지난 10월 1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9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에 선출됨.

▲裴圭漢(74년) 文理大·국민대 교수)=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제7대 원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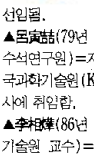
▲**金顯國**(75년) 農大卒·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 = 지난 10월 29일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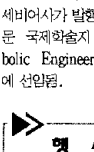
▲**徐善慶**(75년) 醫大卒·고려대 교수·대한의학회 전학회 명예회장 = 최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 인류유전학회 연맹 학술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鄭寅德**(77년) 社會大卒·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 10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원장에 선임됨.



▲**馬寅喆**(79년) 工大卒·한국석공수석연구위원 = 지난 10월 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13대 감사에 취임함.



▲**李相輝**(8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인 교수 = 최근 네덜란드 엘세비어사가 발행하는 생명공학 전문 국제학술지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의 편집위원에 선임됨.



▲**梁巨煥**(57년) 工大卒·한국교통신문 회장 = 최근 건설교통대 회의장에서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설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건설교통시장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등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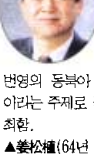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결핵학 이사장·본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 = 지난 10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가천결핵학회에서 가천결핵학 신축 이전식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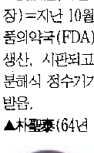
▲**姜碩熙**(60년) 醫大卒·계명대 특임교수·작곡가 = 지난 10월 9~15일 서울 가회동 미술관 '서미아트'에서 고교 기념 헌정 음악회와 악보 전시회를 개최함.



▲**崔松和**(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인문사회연구소 이사장 = 지난 10월 25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평화와 반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姜松植**(64년) 師大卒·한우를 사장 = 지난 10월 18일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전기분해식 정수기가 의류기기로 인정받음.



▲**朴聖泰**(64년) 醫大卒·새서울의원장·한국의약사공론사회회장 = 지난 10월 6일 서울클럽에서 모교 의대 金英均(49년) 醫大卒) 명예교수를 초청, '보완대체의료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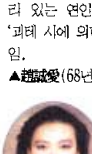


▲**朴培勳**(67년) 師大卒·한국교원대 총장 = 지난 10월 12~29일 개교 20주년을 맞아 문화축전, 전

국학생 백일장, 종합체육대회, 청라가요제, 타임캡슐 불인식, 화술세미나, 기념식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李但悅**(67년) 醫大卒·성신여대 교수·태너 = 지난 10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열어 베토벤 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아델라이데' '파테 시에 의한 가곡' 등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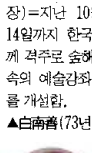
▲**趙淑愛**(68년) 美大卒·한국현대미술협회 회장 =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서호미술관에서 작품전을 개최함.



▲**陳子英**(68년) 美大卒·한국여류조각가협회장 = 지난 10월 13~19일 서울 관훈동 동덕여대갤러리에서 '빛 - 生命(Light - Life)'이란 주제로 조각전을 개최함.



▲**金文煥**(69년) 法大卒·국민대 총장 =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 격주로 순회설각 양성과정, 숲속의 예술강좌 등 무료 산림학교를 개설함.



▲**白南晳**(73년) 醫大卒·원자력병원 의과과장·대한합참회의 부회장 = 지난 10월 14~16일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세계유방암학회



학회 회장으로서, 임상연구 한국대학교 연구자로 참여함. 또 서울 한전아트센터(24일)와 부산 시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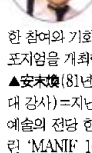
관(25일)에서 독일의 재즈앙상블 '샬타랴로', 재즈가수 윤희정, 가수 유열씨와 함께 유방암 예방을 위한 캠프리본 자선콘서트를 개최함.



▲**吳然天**(74년) 文理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 = 지난 10월 13일 모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미래설계 : 소강국 기쁜'을 주제로 국가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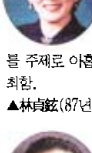
▲**朴殷秀**(79년) 法大卒·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 지난 10월 13~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새로운 고용전략의 창출-완전'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安末煥**(81년) 美大卒·경원전문대 감사 = 지난 10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MANIF 10! 2004 서울 국제아트페어'에 작품, '나무' 관계'를 주제로 작품전을 개최함.



▲**林明玉**(85년) 美大卒·수원대 교수·조각가 = 지난 11월 10~16일 서울 인사동 관훈미술관에서 'Installation : A Sacred place'를 주제로 다음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林貞敏**(87년) 音大卒·태너 = 지난 10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베토벤·슈베르트 연가곡 '백조의 노래', 바그너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등으로 귀국독창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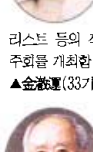
▲**朴富河**(88년) 音大卒·모교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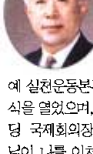
사·소프라노) = 지난 10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열어 헨델, 토너티, 베르디, 구노 등의 작품을 선보임.



▲**申敏定**(89년) 音大卒·그리스도신학대 감사 =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동영산아트홀에서 코다이, 도흐나니, 바르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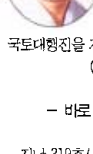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金敬蓮**(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총회에 실천운동본부 총재 = 지난 10월 8일 서울 능동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에서 총회에 실천운동본부 창립 8주년 기념식을 열었으며, 26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자서전 '하나님이 나를 이치심 사랑하심' 출판 기념회를 개최함.



▲**金泰完**(44기) ACAD·민주평화포럼 임의문회의 천안시협의회장 = 지난 10월 23일 천안 아라리오편장에서 통일기원 전국사이클



국토대행진을 개최함. (정리=安美賢기자)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319호(10월 15일자) 23면 동경 행사·출간 내용 중 金敏煥동문은 '85년 美大卒'이 아닌 '87년 美大卒'로 정정하며, 金동문은 10월 6~12일까지 개인전을 개최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명사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6개월 투자로 건강 되찾기

요즘의 진료는 한마디로 건강학이라고 칭할 수 있다.

종래의 치료법은 약물치료, 수술 등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같은 표준화된 치료법을 제시하는 반면, 건강학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신체상태, 성격, 환경 등에 맞춘 개별화된 건강 증진법을 제시한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팔자가 창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내 몸 개혁 6개월'이다.

내 몸 개혁 6개월 프로그램 첫 달에는 내 몸의 예민성을 지배하는 훈련, 금주 6개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다. 둘째 달부터는 2개월에 걸쳐 담배금기를 성취하며, 3개월 후부터는 체중조절을 시작하는데 보통 3개월에 5kg를 감량한다. 내 몸의 예민성이 지배되면, 1개월 후부터는 중세만 고치는 약을 등을 줄이게 되고 체중을 줄이게 되는 4개월부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약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체중감량을 완전히 이룩한 후에 얻는 가장 큰 성과는 적어도 5~10년 젊어지는 외모의 개선과 체력의 향상이다.

내 몸 개혁 6개월은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의사! 환자의 역할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각 개인에게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인지행동치료, 영양치료, 약물 및 호르몬치료, 운동치료 등이 주된 치료법이고, 각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柳 泰 宇
(80년 醫大卒)
모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내 몸 개혁 6개월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내 몸이 바뀌었으면 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고지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모든 사람의 이치가 그렇듯이 내 몸 개혁 6개월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가해질 때나 은퇴 후가 아닌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6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도 중요하다.

내 몸 개혁에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들은 대개 잘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치료자인 환자 자신의 실천이었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로는 잘하고, 의사가 행하는 대로는 따라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같은 건강목표와 방법을 수행해 나간다.

자신의 건강법

자연 벗 삼아 풍욕·술발 산책 즐겨

金 烈 圭 (54년 文理大學) 계명대 석좌교수

'제가 마흔만 넘겨도!'

팔자는 어머님께 이 같은 근심을 꺼져 드리면서 지냈다. 맞대 놓고는 안 그러셨지만, 집안 어른들께 이처럼 탄식하곤 하셨다는 것이다. 그런 형편 없는 약골이 마흔의 끝배기가 아주 멀지는 않을 만큼, 목숨부지 했으니 지극한 모정의 배품일 것 같다. 팔자의 건강법은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에서 비롯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그 여파고, 결대리고 여분이라고 접어 두고 있다.

한데 그 여분 중에서도 환경이 으뜸이다. 바다를 향해 내다보는 일은 언덕에 자리잡은 동자가 삼생(養生)의 제일 일이다.

이른 아침, 물이후에 솟아오르는 천천히 햇살을 맞바라기 한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숨결을 싣고 온 바람을 삼킨다. 아침의 삼상(飢寒), 그것이 보정할 삼스러운 하루를 내다보면서 다음 단계를 실천한다. 천천히 산에 오른다. 술발세의 오솔길에서는 대개 웃음을 뱉는다. 새들이 깔깔대지만 그것도 즐겨운다.

팔자의 '같은 그런 사연'은 오래 '얕은 풍욕(風浴)'을 즐긴다. 햇살 담백 쏟아지는 비탈의 바위 너머에서 상반신 벗은 채로, 이불테면 '바람 맥'을 감는다. 그러기를 한 숨여 분, 조금은 땀이 났을 때 대고는 이른바, '건포(乾布) 마찰(摩擦)'을 한다. 한겨울 아침나절에도 기껏 추위뵈야 영하로 고작 2~3도 정도니, 비오는 날 폐고는 '풍욕'은 그럴 수 없이 쾌적하고 또 상쾌하다. 그때마다 새 목숨 새로이 누리는 기분이 들곤 한다. 참모히게도 기운이 내려갈수록 '재생감'은 그 도수가 늘어난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일년 내내 산나물과 야생초



를 가려 뽑는다. 민들레, 썬바귀, 고들빼기, 질경이, 냉이, 임강귀(아련 잎) 등등이 많은 풀을 차지하는데, 거기에다 내 손으로 기른 시금치, 아욱, 화살나무 잎 등을 적당량 섞어서는 녹즙(綠汁)을 만들어서 들이킨다.

썰 파리를 쫓듯 한몫 거든다. 봄엔 인동, 초여름에는 땅자꽃, 늦가을엔 비파꽃 등을 적당량, 녹즙에 첨가하면 그야말로 마시는 겉로는 제호(蟹肉)의 맛, 저리 가라다.

과일은 대개 자급자족한다. 감, 밤, 대추, 오디 그리고 양파 등은 지천이다. 그걸 직접 우리집 과원의 나무에서 따서는 씻지도 두지 않은 채, 그 당당 먹는데 길들이 있다. 나무에서 제대

로 익은 과일은 과일전에서 엇지 약함을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야생으로는 으름, 산딸기, 머루며 다대도 흔하디 흔하다. 이들을 바로 나무며 남쪽 곁에서 들짐승처럼 우직우직 씹어 삼키거나, '서울살이 사십여 년, 공연히 했었나 보다!'고 혼자말을 하곤 한다.

술발 산책이 그렇고 풍욕이 그렇듯이 녹즙도 과일도 모두 모두 대자연의 위(饋)이다. 옛 시조가 노래했듯이 '山 麓로 水 淸로, 山水路에 나도 절로'다.

그 속에서 늘 하던 일, 해 읽고 글쓰는 일도 어느새 자연이 또 다른 '절로', 이를테면 제2의 '절로'가 됐으니 어 또한 요긴한 '건강 지킴이'일 것이다.



추억의 창

밤새워 사회문제 토론하던 기억 '생생' 권총(F학점) 한 두개 차는 게 자랑거리

李 漢 龍(88년 文理大卒)성균관대 인문학부 교수

'추억의 창'에 실을 사진을 찾기 위해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문대 학장 시절을 회상하는 깊은 상념에 잠겨본다.

자세히 보니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다. 사진의 오른쪽 쪽 뒷부분에 '韓社會科學研究會會員一同, 1966'이라는 글자도 보인다. 앞줄 제일 왼쪽에는 지도 교수님의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은 모교에서 은퇴하시고 한국 학술회의장으로 계시는 金泰吉(사진 ②)선생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다. 이들 중 사회학과 金泰吉(한양대 교수 ⑩)·朴勝吉(③)·鄭鎭一(前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①), 철학과 度賢龍(경남대 교수 ⑥)·崔玄根(스토리문화관 회장 ④), 정치학과 崔重龍(모교 교수 ⑤)·許 堯(문화 사후총장 ⑦), 심리학과 金永哲(대화중합기전 대표 ⑧)교수와는 지금도 자주 만나면서 우정을 나누고 있지만 몇 사람들은 졸업 후 인생의 진로가 달라 벌써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필자(⑨)가 이 사진을 문대 시절의 상징으로 선택한 것은 이 사진이 수많은 전공



의 모임과 그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 그리고 엘리트로서의 성공적 역할 수행 등 문대대가 창출한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문대대는 20여 개의 학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문을 함께 하는 '하나의 문대대'라는 의식이 개별 학과를 압도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전공을 하면서도 문

리대생이려면 누구나 당연히 文史哲이라는 인문학의 7기보다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과학과 기초 자연과학까지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학습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는 요즘 같이 학점 압박도 없었고 어려운 과목들을 수강하다가 한 학기에 권총(F학점) 한 두개 차는 것은 오히려 자랑이 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문리대의 이런 분위기는 이상적인 전인 교육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한다는 분위기가 당시 문리대의 암묵적인 교육 이념이었다. 우리가 서로의 하숙집이나 자취집을 순회하듯 돌아다니며 소주와 맥걸리를 마시며대면서 사회문제도 밤을 새워 토론하고 열불을 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하기도 하는 일들은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모이면 가끔 그 때의 일들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성된 사회의식은 지난날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강은 보통 개나리꽃이 만개하는 4월이나 가까이 돼서야 했고, 이윽고 유강도 자주 있었고, 5월말이나 11월말이 가까이 오기 무섭게 종강이었다. 한 학기, 16주 동안 한번의 휴강이라고 하면 큰일나는 줄로 아는 요즘과는 너무나 격세지감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시간적 여유 덕분에 술도 많이 마시고 쓸데없는 호기도 꽤 부렸지만 몇 일, 몇 주도 도서관에서 진을 치고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찾아준 책을 따라 인류가 축적한 지식을 해면처럼 빨아들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면 반드시 황금시대를 갖고 있다. 이 시대는 그들 역사에서 언제나 4월하고 싶은 동종의 대성하면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이상향이기도 하다. 개인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때가 필자에게 인생의 황금시대가 언제였느냐고 묻자면 지금도 문리대의 학창시절이라고 주저 없이 대답한다.

신 간

꽃의 세상

—盧淑子 著



자난 10월 서을 신사동 청화회관에서 열세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동양화가 盧淑子(66년 美大卒·상경문화센터 강사)등문이 작품집을 펴냈다.

유채, 능소화, 분꽃, 자운영, 비둘기꽃, 문주란, 나팔꽃, 살구꽃, 동백, 수박꽃, 작살치꽃, 아이리스, 솔솔꽃 등 1백70여 개의 꽃그림이 담겨 있다. (미술시대판·값45,000원)

國회법론

—鄭浩永 著



필요성과 제17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국회도서 판권인 鄭浩永(71년 師大卒)등문이 한 국의 정치발전 및 국회의원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위해 '국회법론' 제2판을 펴냈다. 鄭浩永은 우리 나라의 정치·행정 등 사회과학에 대해서 행정권 중심의 이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회의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심정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문사판·값33,000원)

資源의 지배

—金泰由·許堯 著



국회의 안보·군사 전문가인 미이클 클레이의 저서 'RESOURCE WARS'를 우리말로 옮겼다.

중동에서의 석유개발 및 수송로 방위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한 중동 국가의 반발, 고갈되는 수자원을 둘러싼 물부족 국가간 갈등, 국가 수입을 독재와 다이아몬드 등 자원에 의존하는 중앙정부와 반군비반군 사이의 갈등 등 탄생한 시대의 다양한 분쟁 양상을 자원이 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전체 계가 자원보호와 협력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급박한 폭력의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

종연구원판·값16,000원)

맛있는 인생

—朴聖姬 著



한 국경 제 신문 논설위원인 朴聖姬(77년 家政大卒·본보 논설위원)등문이 인터넷 신문 한경닷컴의 커뮤니케이션에 연재한 글들을 엮은 신문집.

이 책은 세 부문으로 나뉘어 '부대찌개라는 슬픈 이름'에서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살피고, '당신을 보았습니까?'에서는 누구든 삶에 용기를 주는 예기를 담았다.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차등문의 시각을 모아놓았다. (디오네판·값8,800원)

행복연습

—정연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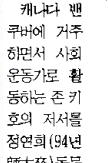
이 우리말로 옮겼다.

한 국경 제 신문 논설위원인 朴聖姬(77년 家政大卒·본보 논설위원)등문이 인터넷 신문 한경닷컴의 커뮤니케이션에 연재한 글들을 엮은 신문집.

이 책은 세 부문으로 나뉘어 '부대찌개라는 슬픈 이름'에서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살피고, '당신을 보았습니까?'에서는 누구든 삶에 용기를 주는 예기를 담았다.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차등문의 시각을 모아놓았다. (디오네판·값8,800원)

행복연습

—정연희 옮김



이 우리말로 옮겼다.

공 연

韓 파르티트2 정기연주회

—11월 25일 예술의 전당

한양대 朴京英(81년 音大卒·캘리스트)교수, 경원대 정재대(84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

강사 등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파르티트 2'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바하, 브리튼, 드뷔시 등의 협주 4중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문의: 예인 예술기획 586-0945)

韓 송호성 클라리넷독주회

—11월 27일 예술의 전당

충남교향악단 수석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호성(97년 音大卒)등문이 클라리넷 독주회를 개최

한다.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 호로비츠, 드뷔시, 슈트라우스, 푸가엘리 등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문의: 영음예술기획 581-5404)

이 책에서 행복은 거창한 이념적 사색만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행복'에 대한 질문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행복을 선택한다면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푸른숲판·값8,800원)

韓 오드리 헵번

—스티븐 힐과 인생

—정연희·정인희 옮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살바토레 페라카모 뮤지엄의 스테파니 리치 관장의 8명이 '로미의 휴일'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의 탄생



(94년 師大卒)등문이 연인인 김오공대 정인희(90년 家政大卒)교수와 함께 번역했다. 영화 스토리와 영화 속 장면, 영화 밖의 장면들을 풍성한 시각자료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푸른숲판·값45,000원)
(정리=安東民기자)

동창회보

동창회보 로고 바꾸면 어떨까?

신 문이나 회보는 첫 페이지와 제목만 대충 넘겨서 사설이나 논평만을 쫓 보는 편이지라, 막상 회보에 대한 평론을 하려니 좀 난감하다.

은퇴 전에도 미세 수술을 할 정도여서 시력은 아직도 양호한 편이지만 망막(網膜) 답게 질사(第四)의 무의, 무필, 무고, 무이(母意, 母必, 母恩, 母我; 논어 자한(子罕)편에 나오는 절사를 말하며, 無難, 無忌, 無難, 無我와 같은 의미로서, 사사로운 뜻에 따라 절한이 없고, 꼭 해야 된다고 장담하지 않았으며, 고정관념이 없어 사사로운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겸양했다는 뜻의 생활신조로 소망하는지라 전과 같이 기사를 속독하지 않으니 더욱 착상이 안 따

오른다.

또한 건강을 위해 즐겨하면 여러 가지 정적인 취미생활(사예, 집필, 비디오 촬영 편집 등)중에서 첼로 연습 이외엔 모두 접어두고 등작인 문동인 승마를 일과 중의 첫째 일정으로 삼기 때문에 글쓰기가 수월치 않아서 혹여 이 줄필이 회보에 오점을 남기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관악춘추’라는 사실관과 ‘노타나무’ 풍장’은 유익하고 좋은 글이 게재돼 동문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그 의 동문들의 동창·인사·행사·시간 소개 등 총체적으로 재입해 있는 알찬 내용물이나 춘풍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글이 제언을 한다면, ‘추억의 향’을 확



林鍾旭
(57년 麗大卒)

前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가족보건의위원장

성화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구세대간의 유대를 강화하게 되는 공간이 되리라 본다. 필자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은 6·25

가 발발했던 해의 6월 12일이었고 입학식 뒤쪽이 때 ‘호연지기를 자녀라’라는 교훈과 함께 막걸리를 한사발씩 마시던 생각이 난다.

회보의 ‘서울大同會報’라는 음각의 제호를 명필로 바꾸었으면 한다면 내인의 목심일까? 물론 동창회 유공인사의 기념비적 취호라고 추정되지만, 글로벌사대임을 감안하면 한국 최고명문의 문패임에 걸맞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모교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이상문에 지우친 화중지명(畫中之餅)에 불과하겠지만, 서울대가 소수정예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환골탈태(換骨轉胎)하여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상아탑이 됐으면 한다. 하여, 제명구도(鎭鳴求道)하는 정성집배나 곡학이세(曲學伊世)하는 학자의 배출이 아닌 대의대행(大義大行)을 구현하는 국가도량만이 양산(量產)되기를 꿈꾸어 본다.

아는 분의 기사 읽는 재미 ‘술술’

작 난 겨울에 졸업 20주년 기념 동창회동회를 했었다. 참석자중 반 이상이 대학 졸업 후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고,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친구가 3명이나 됐다. 대학시절의 모습에 현재의 모습을 오버랩 하면서 세월을 느끼는 대신 우리들의 관심은 ‘애는 지금 뭘 하고 있을 까’였던 것 같다. 각자의 소개와 인사는 ‘여시’, ‘어머’, ‘그랬구나’의 탄성으로 이어졌고 20년의 세월을 넘어 오랜 기간 같이 지내온 혈육 같은 유대를 느끼게 됐던 것 같다. 내가 동창회보를 받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이 동창회 이후였던 것 같다.

매달 배달되는 동창회보를 우체통에서 집어오 이웃이 봐주었으면 하는 유서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조장을 뜯으며 보이는 세월을 필라한 정경한 선후배들에 관한 기사며 심지어 광고까지도, 동창회보의 내용

은 일반신문과는 다르게 나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감정 기록을 경험하게 한다.

‘이 사람은 나보다 후배네, 벌써 이런 위치에 있네’, ‘가장대를 나와서 기사를 하기도 하는구나’ 이 정은 아마 예고일 거다.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기사를 보며 열등하게 흥분하고, ‘어머, 지평이 높아졌어’하고 눈을 흘키기도 하며, ‘이런 내용이 동창회보 기사가 되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게다가 모교의 소식, 무슨 건물이 생기고, 어느 교수님께서 장년퇴직을 하시고, 또는 어떤 보직을 맡으시고 동등의 근황을 집합하면, 마치 서울대가 내게만 소식을 전해준 듯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10월호 동창회보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안들을 취재하며 느낀 몇 에게를 이 현지 기사 동문들의 관점으로 쏘아져 흥미진진했는데, 한편 객관적 기사보다 숨겨



金永美
(83년 義大卒)

울산의대 이산생명과학
연구소 부교수

진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나 자신에 머숙하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필자에게 동창회보의 매력은 기사 중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의 기사를 읽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던 분의 집안이 서울대 동문 가족으로 소개된 것을 보고는 ‘아! 놀랐겠네’하고 부러워하다가, 나의 아들, 딸도

꼭 서울대를 보내 동문 가족으로 소개되어 있지 하고 어쨌든 다짐을 하기도 했다. 혹은 소식을 궁금한 이들의 기사를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이쁨만 뒤지기도 하다가, 과파자로서, 이공계 분야 선배, 후배들의 눈부신 활약을 접할 때면 부럽다 못해 질투심에 불타기도 한다. 사실 미국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우리 동창회보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니, 동창회보를 보며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은 고스란히 혼자 삭여야 할 나만의 몫이기도 하다.

나를 아려져려한 방법으로, 즉 대학 때 미팅 파트너였다든지, 혹은 별로 활발치 못했던 씨름활동할 때 땀배어다든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문들에게 내 존재와 현황을 전하는 길이 있다면, 아마도 동창회보에 내 글을 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게 원고창작을 거절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변명이다.

나를 아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다.